

전남개발공사,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빈집활용,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등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공로 인정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으며, 심사사는 주거복지학계, 언론, 정책,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여해 전국에서 접수된 78건의 기관(단체) 응모작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진행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사는 지역 내 증가하는 빈집의 실태를 고려해 기관협력 빈집활용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전용 주거모델 수립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서 주거

복지문화 확산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주거·생활 통합지원 주거복지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교육 △주거복지포털 구축 및 종합상담창구 운영 등 다층적 주거복지정책을 연계·확장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혁신과 주거복지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전남예선대회 시상

시·군 문고회장 100명 참석
독후감·편지글 등 4개 부문
지역사회 독서 생활화 정착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는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전남도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후원으로 건전한 독서 기풍을 정착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독서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종합평가, 운영(작은도서관·이동도서관·재능기부동아리), 독후감, 편지글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를 비롯해 시·군 문고회장 및 지도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심사평, 시상, 대화사, 격려사, 우수작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는 21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대통령기 제45회 국민독서경진전남도예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평가부문 최우수상은 새마을문고 순천시지부가 올랐다.

운영부문에서는 경남아너스빌 새마을작은도서관, 재능기부동아리 ‘행복비타민’, 여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 각각 우수단

체로 선정됐다. 독후감 단체 및 개인 부문과 편지글 부문 수상자 80명에게도 도지사, 도의회의장, 도교육감 상을 비롯한 도새마을회장, 도문고회장이 수여됐다.

백영자 새마을문고전남도지부 회장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일수록 책이 주는 깊은 사색과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일상에서 책과 가까워지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

광주시의회, ‘지역산업위기 대응 조례’ 최우수상

행안부 주관 경진대회서 전국 유일 7년 연속 수상 쾌거

광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광주시의회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며, 입법역량과 정책혁신을 동시에 인정받는 전국 최우수 의회의 위상을 굳건히 지켰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중 우수한 입법 및 정책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사전 서면심사(60%)와 현장 발표심사(40%)를 합성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본심사에는 총 12개 지방의회가 진출했으며, 광주시의회는 홍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광주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출품했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시·도에서 연간 약 3100여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로 최종 선정됐다.

홍 의원이 발의·제정한 조례는 국제경쟁 심화와 정보화의 고도화 등의 이유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지역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지역 자체적으로 산업위기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방안을



광주시의회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담고 있다.

특히 모니터링 및 산업 실태조사, 지역 산업위기의 예방계획 수립, 자금·연구개발·기술·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산업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운영 등이 포함, 지방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

조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또 이 조례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유사한 산업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타 시·도에 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광주시의회가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 8개 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

해남 최우수·곡성 지역특화사업 우수…현장 중심 지원체계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해남군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전남 8개 센터가 우수 등급을 획득, 전남의 현장 중심 지원체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지역자활센터는 해남군을 포함해 나주시, 광양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완도군, 신안군 등 8개 지역자활센터다. 여기에 곡성군이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센터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국 228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성과평가는 2023~2024년 사업 실적에 대해 참여자 자활역량증진, 사업단 운영성과, 자활기업 활성화, 센터 운영 전문성, 지역사회 연계·협력 활성화 등 총 16개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선정된 최우수기관에는 2000만원, 우수기관은 1500만원,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은 700만원의 인센티브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해남지역자활센터.

가 지급된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활근로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활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도민의 자립 의지를 실현하는 전남형 자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최근 ‘김장 한마당’ 행사를 개최,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센터 입주관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남하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남북 잇는 김장 한마당

지역 주민·북한이탈주민 참여…남북 김치 시식·소통의 장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는 최근 ‘김장 한마당’ 행사를 개최, 지역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센터 입주관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남하나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장은 한민족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로, 북한에서도 이맘때 김장을 준비하는 전통이 있어 동질감과 소속감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남북 대표김치인 북한 황해도 늪은호박김치, 남한 배추김치 김장 시연과 체험, 남북 김치 김장·시식, 자유로운 소통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김장을 하고, 현장에서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날 담긴 김치 일부는 전남하나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이 어갈 계획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웃과 함께 김장을 담고 나누며 힘과 용기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와 나눔 행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경찰청은 최근 남구 주월중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광주경찰청, ‘청소년 범죄예방 골든벨’ 개최

주월중 대강당…디지털 성범죄·사이버도박 경각심

광주경찰청은 남구 주월중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월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직원, 학교 전담경찰관(SPO)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퀴즈대회는 광주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허위영상물 유포 성범죄, 사이버도박 등 중독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각 경찰서별 관내 중학교를 순회 방문해 범죄예방 골든벨 퀴즈대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중독성 범죄 특별 예방교육, 학교 폭력·성범죄 예방 홍보 등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승희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는 평범한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만큼 예방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